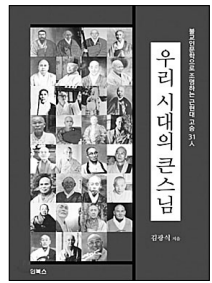


# 구도역정 펼친 31명 큰스님들이 던지는 사자후

## 우리시대의 큰 스님

김광식 지음 | 인북스 펴냄 | 1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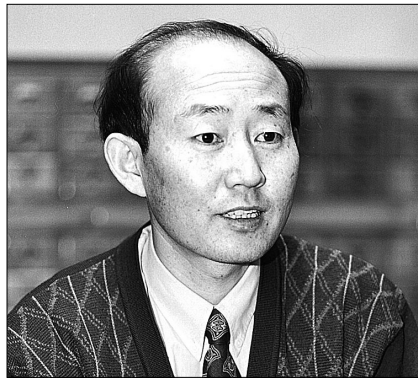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오른쪽 사진>는 한국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전문가이다. 연구 접근 방식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그래서 관련된 학술 세미나가 열릴때마다 발표자 섭외 1순위로 꼽힌다.

김 교수가 이번에는 한국 근현대 큰 스님을 '불교 인문학'의 관점에서 조명한 책을 펴냈다. 제목은 <우리 시대의 큰 스님>이다. 물론 지금껏 우리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큰 스님에 대한 책은 시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출간됐다. 형태도 대표적인 법어집을 비롯해 구도소설, 평전 및 일대기, 대담집 등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문중 중심의 칭찬 일변도 서술이 많아 객관성에서 아쉽고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신선함이 돋보인다.

최근 20년간 근현대 한국불교사 연구는 학문적으로 왕성히 전개됐다. 그 결과 큰스님에 대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대거 발굴되고, 그에 따라 연구 저변도 눈에 띄게 확대됐다. 이는 곧 큰스님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지평을 넓힐 기회가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근현대불교,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들의 사상과 행적을 학술적,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재해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큰스님들의 행적과 사상은 인문적 성찰을 포괄하는 학문적 명제가 담겨 있다. 한국불교는 물론 한국 지성사의 정신적 가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고승의 역사와 문화야말로 우리 삶의 가치와 문화를 풍부히 해주는 인문학적 요소가 학문적 대상인 것이다. 불교인문학 관점에서 고승의 삶에 나타난 다양한 이념과 사상, 좌절과 성취, 인간상 등을 발굴 문헌과 신뢰도 높은 증언을 통해 조명한 이 책은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진취적인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지향점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 등장하는 31분의 큰스님은 선의 중흥, 교학과 역경, 포교와 빈민구제, 종풍 쇄신, 민족운동 등의 분야서 활약한 큰스님들로 보살정신 구현, 수행경지 증득, 실천적 활동, 독립운동, 중무 행정 등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1835년생인 경허 스님부터 1914년에 출생하여 2003년에 열반한 서암 스님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정진으로 정법사회 구현을 위해 몸 바친 이들 스님의 공통점은, 생애 동안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긴 고난의 시기와 해방과 6·25로 이어지는 혼돈의 시대를 겪은 점이다. 불교사적



**불교인문학적 접근으로 이해도 제고**  
**인생재표, 한국불교사 등 이해에 큰 도움**  
**현 스님들의 조직 심층적으로 이해 가능**

으로도 명맥까지 끊기다시피 한 척박한 한국불교를 빠른 걷는 정진을 통해 일으켜 세우려 했기에 이들의 역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그런 역경과 거듭된 좌절을 극복한 큰스님들의 정신과 행적을 되새겨본다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성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불교는 단순히 인간 중심이 아닌 모든 만물과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인본주의와 불교, 불교와 과학, 실존철학과 불교 등 적극적인 불교 인문적 사유를 통해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도 큰스님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1,700년 한국불교사의 중심에 자리한 큰스님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배불정책이 시행된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정신적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전통문화 역사 불교문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큰스님들이 중심이 된 문학적, 철학적, 예술적 유산은 인문학적 접근으로 체계적인 이해가 훨씬 용이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저자가 불교인문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큰스님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저자는 불모지 같았던 근대불교사에 남다른 열정으로 뛰어들어, 1994년부터 21년 동안 200편이 넘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대학자이다. 연구자를 찾기 어려운 근대불교사 연구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김 교수가 주목한 대상은 근대기의 큰스님들이었다. 인물사 정리로 한국 근대불교의 제 모습을 되찾고자 생각한 그의 집념으로 백용성, 한용운 등 한국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님들의 생애와 사상이 집중 조명되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그는

객관적인 근대불교사 정립을 위해 근대 큰스님들의 문헌과 후손 등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구술을 채록하고 현장을 탐문해, 흔적이 미미한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을 복원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게 20여 년간을 직접 발로 뛰며 구술함으로써 이룩한 고승 연구 자료의 축적은 이 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근간을 이룬다. 그의 큰스님들에 대한 정확한 행적 고증과 사상에 대한 분석은 학계의 근대불교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저술에서는 31분 스님의 법맥과 계맥의 전승, 사자 전승의 계보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함께 문중의 지평도를 일목요연하게 그려내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 큰스님들을 다시 조명, 교계와 학계의 객관적인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음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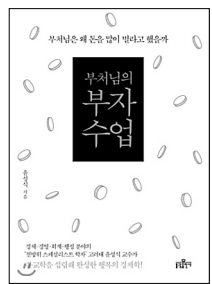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큰스님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저자는 “우선 인생의 좌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모순과 난관 등을 큰 스님들이 걸은 삶과 정신에 반추해 보면 현실을 타개할 지혜와 용기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며 “둘째로는 큰 스님들의 생애를 통해 한국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불교의 운영체제와 스님들의 조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hyunbul.com

# 부처님께서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

## 부처님의 부자수업

윤성식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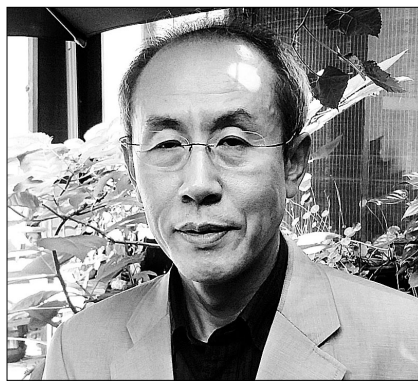
이 책의 미덕은 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데 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냉철히 되돌아보며,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 돈과 욕망의 속성을 정직하게 직시하며, 정신과 물질의 균형 속에서 운택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은 불교와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와 적절한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풀어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소비할 것인지, 부처님 말씀에 대입해 방법론적으로 제시한다. 가령 부처님은 이자 수입을 인정하며 채테크 방법에 대해서도 일러줬다. 예를 들자면 “소득의 1/4은 남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창출하라”고 했다. 이에 저자는 사업, 부동산, 주식, 보험, 저축 등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총망라하고 비교 분석해, 각 분야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다.

또한 부를 기준으로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으로 나눠 각 계층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문가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 테면 빈곤층에게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라도 돈에 대해 가장 많이 공부해야 한다.”, 중산층에게는 “자칫하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좀 더 단속 소박한 삶을 살며 사회의 균형을 잡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부처님 말씀에 비취 경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부유층에게는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사회 기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라며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한다.

부처님은 돈에 대해 어떤 말씀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로 알고 있다. 부처님은 돈에 관한 한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별해서 달리 설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출가자의 삶에 맞춰진 불교만을 부각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돈은 부질없는 것이니 멀리하고, 욕망을 비워낸 자리에서 무소유의 행복을 누리라.”고 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와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파했다. 벌들이 꿀을 모으는 것처럼, 부처리히 돈을 많이 벌어 부(富)를 축적하라고 장려했던 것이다.

인류 역사상 돈은 항상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지금처럼 위력을 발휘한 적은 없었다. 현대의 자본주



**각 계층에 따라 어떤 노력 필요한지 조언**  
**저자 “부처님, 열심히 벌어 부 축적 장려”**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해 사회 변화 시키야**

의 사회에서 돈은 곧 생명줄과도 같다. 돈은 이제 신(神)의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돈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현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며, 돈은 소수의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에 종속되어 자유롭지 못하고, 돈으로 인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애써 폄하하며, 가난한 자신을 눈물겹게 합리화한다. 돈과 행복을 무관한 것으로 보며,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외치며 스스로를 위안한다. 빈궁한 삶을 그럴

싸하게 포장하여 행복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 돈과 행복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지지 못한다. 돈과 욕망 앞에서 정직해질 때 세상에 속지 않는다.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다. 그렇다면 삶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죽음의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했다. 이것은 삶에서 돈 문제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처님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소유나 자발적 가난이 아니다. 부처님은 삶의 속성과 세상살이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난을 벗어나 부를 축적해 안락한 삶을 살라고 했다. 부자를 가리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가난하게 살면 큰 고통이 따를 뿐 아니라, 때로는 죄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나는 평생 돈에 대해서 공부해왔다.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으로 학위가 있고, 공인회계사이며 미국 텍사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도 역임했다. 이런 나에게 돈에 관한 부처님 말씀은 매우 논리적이고 정직한 조언으로 느껴진다. 만약 부처님이 ‘돈은 부질없이 멀리하라’ 했다면, 나는 ‘불교는 현대인에게 맞지 않구나’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았을 것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윤성식 교수(사진 왼쪽)는 평생 돈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그에게 아무리 천천해도 풀리지 않는 화두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혁신이다. 해법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우연히 뒤늦게 입문한 불교, 경전 속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였다. 윤 교수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동국대에서 불교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경제학 박사가 불교학 박사가 되어, 경제 문제를 불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새로운 지평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불교의 중도와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해, 시장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불교자본주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지난 2011년 <불교자본주의>를 책으로 펴내, 그동안 무소유의 위세에 가려 잊혀졌던 불교의 경제관을 세상에 제대로 드러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삶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를 바로잡고, 돈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지혜와 실천을 학문적 체계로 집대성했다.

이후 불교자본주의 이론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SNS와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 쉽게 소통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돈 문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복의 경제학 <부처님의 부자 수업>을 펴냈다. 이 책은 그동안 묻혀있던 경제생활에 대한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의 삶 속에 고스란히 적용해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돈과 세상에 속지 않는 여실지견(如實之見,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다)의 바른 안목을 길러주며, 돈과 욕망에 당당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 한마디로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 가장 큰 고통으로 작용하는 돈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목련의 기도

백금남 장편소설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 원하고 행하면 이루어진다!

참글서당

베스트셀러 소설 <관상>의 작가 백금남의 또 하나의 걸작!

## 우란분절에 만난 지극한 효 이야기!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여섯 지옥을 헤맨 전생의 목련존자, 그리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아 나선 현생의 나…….

“어허, 극락세계를 마다하고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부모가 무엇이기어……. 그대를 인간지옥에 넣은 이들이 바로 부모란 존재라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이곳의 그대들이 알겠소.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나의 우주이기 때문이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장본인들이요, 그러므로 바로 나이기 때문이요.”

거대한 윤회의 법칙만이 전부인, 그렇기에 우주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들에게 말해줘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도 목련은 그렇게 말하였다. (본문에서)

백금남 지음 | 신국판 | 368쪽 | 값 13,500원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7길 12 백성빌딩 1305호 | kyooni1003@hanmail.net

**참글서당**  
1% 나눔의 기쁨